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4,

애가 5: 17-22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4회 애가 5:17-22입니다.

이제 애가 5장의 마지막 부분, 즉 17절부터 22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책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할 때 미지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집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탄식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절의 간구를 인식합니다. 우리를 당신께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날을 옛적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이는 1절, 오 주여 우리에게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에서 믿음의 확언, 신뢰의 확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기도 애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17부터 18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전 절 전체와 함께 2절부터 시작되는 긴 절이 있는데 지금은 직업에 관한 장례 애도를 기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16절 끝에 그러한 전환이 있고 우리는 17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화, 이 새로운 강화를 얻었습니다. 18절에 황폐한 시온산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여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본문이 진행되는 한 우리는 직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이 그 폐허가 된 도시, 즉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전반적인 재난, 즉 예루살렘의 파멸과 성전의 파괴로 정점에 이르렀던 이 모든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장과 18장의 시편 애도와 거기에서 발견되는 위기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설명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애도 상황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힌트 때문에 17장의 새로운 서문이 이러한 경계를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애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 애가와 다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절과 22절의 부정성입니다.

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왜 며칠 동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22절, 만일 너희가 우리를 온전히 배척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심히 노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시편 애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문과 관련하여 시편 애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위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반적인 시편 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가서의 결말에 관한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 살펴보고 여기에 애가의 시편의 하위 유형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디오 과정의 시작 부분과 맨 처음 부분에서 시편과 애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크레이그 브로일스(Craig Broyles)라는 사람이 쓴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에서 믿음과 경험의 갈등이라고 불립니다.

그 책이 하는 일은 애가 5장의 결말에 해당하는 시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애가가 65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 44개는 일반적인 시편 애가입니다. 그러나 21편은 우리가 불평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위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적들과 인간이 인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21개의 예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이 회중기도에서 요구됩니다. 시편 애가의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공동체의 애도와 개인의 애도 모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실, 그들은 두 가지 질문으로 표시됩니다.

때로는 하나의 질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 가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4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글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왜? 시편 7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장의 양들을 향하여 분노의 연기를 피우시나이까? 그 이유는 두 배입니다.

그리고 물론 20절에는 두 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왜 며칠 동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74편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74편 11절에서는 왜 손을 잡지 않습니까? 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불평의 시편을 소개하면서 이 구절을 언급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병렬성을 볼 수 있습니다.

74:와 74:11에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원수가 언제까지 비웃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는 원수입니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과정의 훨씬 앞부분에서 이러한 불평의 시편을 소개했을 때 이것이 정보를 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의의 방법이자 당황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너무 길다고 말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글썄, 우리는 왜.

실제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여러 날 동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맏소사.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합니까? 애가의 내용을 보면 그 중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의 과거 상황에서 비롯된 심리적 슬픔과 뒤를 돌아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합니다. 18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과 그것이 그 수도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전후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방식으로, 5장에서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멘토들의 관심과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꼼찍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슬픔, 그들의 슬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이러한 괴롭힘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뻐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괜찮은.

이 탄원의 시편에 관해 우리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시편에서 발견한 특별한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썄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고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부재하십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힘으로만 존재합니다. 신자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통에는 굴욕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굴욕이 너무 커지거나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양한 이유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것들이 이 불평 요소 뒤에 영적으로 반향되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22절을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장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1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애가의 시편이 아니라 분석한 바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돌아올 때, 더 분명한 기도 애도의 형태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것이 특정한 모델, 즉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하위 유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평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주석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회중과 멘토가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붙잡고 활용할 수 있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독교 역사와 교제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통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대답이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주석을 마치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설자들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17과 18이 함께 간다고 같은 말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전치사의 반복된 스타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결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시온산 때문이다. 그래서 17과 18 사이에 전치사가 반복되면서 이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주제, 이 새로운 요소에 대해 주의 깊게 소개했습니다. 애가에서는 오래된 요소인 시온 산의 황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들은 18절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IV도 같은 노선을 취합니다.

이 때문에 황폐한 시온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이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로 전치사를 반복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것은 똑같지만 이 시점에서는 NRSV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18절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슬픔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은 지금 느끼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에서는 눈이 심리적 지각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우에는 이해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시각 장애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맹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일종의 영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밝고 꼬리가 덩수룩한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픈 눈의 시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마도 아픈 눈은 여기에서 흐릿한 눈과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부족은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20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17절 끝 부분에 암시되어 있는 이러한 당혹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시온 산 때문에 자칼들이 그 위로 배회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일부였던 곳이 이제 농촌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황야일 뿐이고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실은 야생 동물들이죠. 시온 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장 1절에서 성읍이라 일컬어졌던 시온만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화되어 있고 또 다른 주석적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이 서 있던 언덕인 성전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단어 마운트가 차별화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몇 번 있지만, 시온산은 실제로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인 주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라면 사찰을 포함한 도시일 수도 있고, 사찰 지역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도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일부는 그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는 이전 유다의 수도였으며 그 이전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수도가 더 이상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도는 북쪽으로 8마일 떨어진 미스바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전후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장과 1절에 보면 그 도시는 얼마나 외로운 곳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시이거나 도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겪었던 재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황폐하고, 황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가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내가 황폐하다, 황폐하다로 표현하고 싶은 히브리어 형용사 부끄러움입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 심리적인 느낌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형용사 형태의 shamm 또는 어떤 경우에는 책 전체에 걸쳐 실행되는 동사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파괴적인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현상과 주관적인 반응인 황폐함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한 제목으로 묶어서 한 번만 다루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온 산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자칼이 그 위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4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문이 다 황폐하였도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애통하고 절기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문이 다 황폐하였도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반이 있고, 무너진 침입자를 막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여기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성문은 시온으로 가는 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황량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에 겹쳐지는 주관적인 의미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맛있는 조합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1:13에는 1장에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멍하니 이 단어 샤뎜 .

그리고 여기에 주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시온입니다. 나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수가 이기므로 나의 자녀들이 황폐하도다. 다시 한번, 나의 자녀들아,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과 이 전례, 이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아. 시온은 내 자녀들이 황폐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는 3장 11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멘토는 자신이 처한 개인의 위기 에 대해 첫 번째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길에서 데려가서 곰이나 사자처럼 나를 찢었습니다. 그는 나를 황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특정 단어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4장 5절에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동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멸망합니다. 그들은 거리에 황폐하게 누워있습니다.

4:5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다말을 그의 보호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여성형인데 그녀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 압살롬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그를 돌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딸을 낳으매 그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 주었느냐? 다말,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 이모.

그리고 그의 집에 살았던 자매인 그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강간당한 여성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온산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키워드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는 시온 산이 황폐화되고 그곳에서 배회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와 신학, 영적 정상성을 가로막는 큰 슬픔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반하는 시온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시온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 20절에 이르면 항의와 도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19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도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신뢰에 대한 확언입니다. 그러나 그 하위 유형인 도전의 기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기도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설득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통치하세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 신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 시편에 나타난 이 불평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왕의 시편이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확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것, 즉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위대한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찬송,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가계에 기초한 이 영원한 왕조를 엮어냅니다. 그리고 왕실 대변인은 "아,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위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를 멸시하고 거절하였느니라. 당신은 기름부음받은 자에게 진노가 가득 차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가에서 거기에는 항의가 있고 거기에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실 당신은 이 찬송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니다, 이건 틀렸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찬양의 성명서에서 묘사되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 19절에서 발견한 내용에 대한 유용한 배경이며, 이러한 믿음의 확언이 어떻게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당혹감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18절은 시온 신학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편과 48절이 그렇습니다.

시편 48편 2절. 큰 왕의 성 시온 산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위대한 왕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은 시온 신학의 일부로 찬양됩니다.

시온의 특별한 노래들 외에도 우리는 시온주의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시온과 관련된 왕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NIV이고 이제 그것은 시온에 거하시는 NRSV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좌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언서에는 장차 시온에서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가끔 나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리로다. 미가서 4장 7절.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의 왕권은 성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섯 번이나 언약궤가 여호와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열방이 떨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진동할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 행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편 24편에서 시편은 방주 행렬과 관련된 전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네 번이나, 언약궤로 대표되는 영광의 왕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신성한 왕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믿음의 확증은 그 자체로 향의입니다. 암묵적인 향의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그 약속들과 수세기 동안 우리 신학에서 기능했던 우리의 일반적인 신학적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도전, 객관적인 도전을 정식화한 후에 그들은 이제 19절에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 신학이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전에 책에서 시온 신학을 다루었고,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기대라는 주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일부는 때때로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멘토는 출애굽기 34장과 6절로 돌아가서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불길한 배경이 있는 3장에서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나 불길한가.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용서와 수용으로 돌아가는 뒷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5장에서 회중은 암묵적으로 그 상황을 붙잡고 있으며 멘토는 당신이 돌아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간적인 면에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회중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오랜 기대를 영구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기 예언과 포로기 이후의 예언을 살펴보면 시온 신학으로의 복귀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그곳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시온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생각의 초석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신학은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의 내용으로 보이는 이사야 62장에서도 전체 장은 실제로 시온 신학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예언적 영역 모두 미래의 전망으로 시온신학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의가 새벽 같이 빛나며 그 구원이 햇불 같이 빛나기까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구절일 뿐이지만, 전체 장은 시온 신학이 다시 한 번 전면에 등장하고 다시 실현되는 것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축하하는 데 할애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중이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신학이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결국 약속을 지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온 신학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상하고 그것이 다시 한 번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항의, 이러한 명백한 항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왜 며칠 동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 잊혀졌다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의 반대입니다.

1절에서 무시하라는 뜻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왔던 일입니다. 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요? 왜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 위대한 전통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분명한 도전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사, 또 다른 부정 동사는, 왜 이 며칠 동안 우리를 버리셨나요? 축복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 여기저기서 주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임재, 즉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3장 56절에서 멘토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염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는 가까이 왔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긍정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적인 임재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22편은 항의와 도전의 기도이며 그렇게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맏소사, 그것은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관계에 대한 기대는 축복과 구원의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서로 얽매이지 않고 고의로 뭉쳐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암묵적인 탄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왕권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회중이 여기서 지나치게 대답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히 이것을 말합니까?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암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3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3장은 5장에 있는 회중의 호소와 도전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3장에서는 멘토가 하나님의 두 부분으로 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형벌을 내리셔야 했고, 그런 다음 계속해서 먼저 나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암묵적인 간청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3장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영속성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러한 도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멘토가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실 것이며 더 이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게 만듭니다. 셋째, 죄를 고백한 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용납을 받기 위한 이러한 뒷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시에서 이미 두 번이나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사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옛날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21절의 시작 부분에는 약간 잠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 회중은 고백과 회개의 인간적인 측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중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만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장과 마지막 29절에는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연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잠정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신학적인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신학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한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자백과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는 마치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능한 가장 강력한 주장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판사와 배심원은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와 배심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께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지만, 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대답할 건가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날을 옛적과 같이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존적, 객관적, 정치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단어를 원합니다. 외부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주세요. 우리의 날을 옛날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기도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것은 슬픔에 빠진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하고 바라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슬픔이 작든 크든에 따라 그 오래된 평범함은 어떤 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이 등장할 것이며 기존 표준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내가 좋았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중이 결국 배워야 할 작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항의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애가의 시편에서 이에 대한 유사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74편 1절을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왜?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와 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셨습니까? 오 맏소사. 때로는 질문의 형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44편과 23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잘못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실제로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시편 44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령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애가 5장 22절의 진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왕의 불평의 시편인 시편 89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지금의 다윗 왕을 멸시하시고 버리셨나이다.

당신은 기름부음받은 자에게 진노가 가득 차 계십니다. 당신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평행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진술입니다. 여기서 이 이중 도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특별한 시편의 궁극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응답하시고, 부정적인 목적을 내면의 긍정적인 목적으로 바꾸시려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과 14절과 15절에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전적인 불평의 시편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적인 맥락에서 얻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자가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이것들을 잊어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온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모든 불평의 시편과 여기 이사야 49장에 있는 도전의 힘입니다. 예, 실제로는 49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9, 14, 15.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부.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를 의심합니다.

그 또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일에 너무 헌신적이어서 다른 배우자가 무시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돌아서서 '아, 그렇군요'라고 말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49장의 명시적인 문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가 5장의 끝 부분에 있는 여기 문맥에 대해 암묵적으로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화를 내지 않는 한, 희망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아뇨, 아직 못 봤어요”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정경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제2 이사야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애가의 부정성을 떠올리고 그 언어를 애가를 대신하여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꾸는 예언적 본문을 얻습니다. 망명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탄원서를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언급한 상황과 유사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4장 38절을 언급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습니다.

마치 그는 덜 신경 쓸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폭풍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물론 난 상관해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익사 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객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확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앞서 회중의 기도가 3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멘토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멘토는 3장과 3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도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한, 그들 뒤에는 확신을 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전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평, 항의, 도전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3장과 39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왜 자기 죄의 형벌에 대해 불평하겠습니까?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어떤 전망이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 삶에서 당신을 위해 좋은 일들을 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 사람이 왜 자기 죄의 형벌에 대해 불평해야 합니까? 처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고쳤던 불평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유일한 다른 사례는 민수기 11장과 1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당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정당한 불평이 있었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다른 예와 대조했습니다.

우리엔 음식이 없어요. 우리엔 물이 없어요. 알았어, 내가 줄게.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히려 받아주신다는 불평도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용 가능한 유형의 불만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그 예를 봅니다. 또한 소개하는 방식으로 볼 때 다른 예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례하게 들립니다. 안 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돼. 정말 무례해요.

아뇨,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의 폭풍에 대한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멸망해도 상관없나요? 마태와 누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완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맛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는 불평을 받아들여 특히 박해의 때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글과 기도에는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나옵니다.

불만사항이 통합됩니다. Fiddler on the Roof에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 이야기.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우유장수는 그의 말이 절름발이가 되어 우유 카트를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원은 고객에게 우유를 전달하기 위해 통로 사이로 들어가서 직접 카트를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만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유대인의 불평 형태입니다. 오늘 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식일 직전에 저의 불쌍하고 늙은 말의 신발을 벗겨지게 해야만 하셨나요? 그건 좋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딸을 축복해 주세요.

빈곤의 삶. 내 말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끔은 세상이 너무 조용할 때면 '내가 친구에게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것이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맙소사, 나한테 그런 소식을 보내야 했나요? 나쁜 소식. 모든 날의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 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유대교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것이 박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도 기독교는 충분한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에서 지배적인 종교였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신약성서는 박해에도 유익이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에도 해당되며 신약에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자.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4회 애가 5:17-22입니다.